

경쟁력 갖춘 무주 만든다

군, 20일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20개 전 부서 385개 업무 공유

무주군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 방향과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18일부터 20일까지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이번 보고회는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20개 전 부서가 주요 현안사업과 국책사업, 공약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무주군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 방향과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군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민선7기 군정지표 실현을 위한 군정방침의 신속한 핵심 키워드를 '있다, 더하다, 키우다, 갖추다, 함께하다'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의 공직자들이 모든 힘과 역량을 쏟아낼 것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21년 주요 핵심사업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적극 펼치는 한편 부서간 긴밀한 협연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군정 추진을 펼쳐 무주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다.

올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 등 7개 '무주다운 성장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는

데 심혈을 쏟고 마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공공도서관 건립, 군립 요양병원 건립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 무주군의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보고회는 형식적인 보고를 벗어나 역점사업과

현안업무 공유를 통해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다"며 "각종 현안사업들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 생활불편 해결사 역할 톡톡

진안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민원 해결·주거환경개선 등 추진

최근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상수도 및 보일러 동파 복구 등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기동처리반은 생활민원을 접수한 기초생활수급자 A모 할머니의 집을 방문, 상수도 및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어 보일러 난방을 하지 못한 채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서 전기장판 한 장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기동처리반이 동파된 수도관 및 보일러 배관을 해빙하자 보일러가 작동하면서, 방바닥에 훈훈한 온기가 돌아다.

할머니는 "늙으면 죽어가지 남들에게 폐만 끼친다"며 기동반에 고맙다고 말했다.

진안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직통전화(063-430-2857)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2,513건(가로등 2,128, 보

일러 143, 수도 54, 전기시설 102 및 기타 86)의 민원을 해결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배를 지원 하는 등 주민들에게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덜어드리고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구성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전기설비 점검, 동절기 수도, 보일러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2009년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로등, 전기수리, 보일러교정 및 수도 누수 등 일상적인 생활 불편 민원에 대해 현장출동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어 타 시군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등 생활민원 업무 개선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장영수 장수군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장영수 군수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장 군수는 18일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장수군이 앞장 서겠습니다'라는 사진을 SNS에 게재한 뒤 군민 모두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지방분권에 장수군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지명을 받아 진행했으며 장 군수는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성일 완주군수, 최태호 안양시장, 김용문 장수군정장을 지명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

자치분권 전무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 국회 통과로 본격화된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각오와 계획 등을 공유하는 취지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시작된 이래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힘으로 실현 가능하다"며 "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반딧불 농업대학 학과 개설 위한 설문조사 실시

무주농기센터, 농업인 원하는 의견 수렴 위해

무주농업기술센터가 제13기 반딧불 농업대학 학과 개설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는 22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2~3개 학과 개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 내방 농업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농업인 실용교육생 밴드)에서 실시한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반딧불 농업대학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당초 18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일주일 연장했으며, 질문 내용은 과거 농업대학 수강여부를 비롯한 만족도 조사 등을 담았다.

반딧불 농업대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과를 개설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은 실습, 현장교육, 토론 등 다양한 교육 방법과 과정을 운영하며,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농업인 교육 중 단연 으뜸과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 하현진 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내방 농업인의 발길도 줄었다"며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생의 의견도 반영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반딧불 농업대학은 2020년 사과, 포도, 농산물마케팅과에서 139명의 졸업 및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2009년 개교 이래 총 1,460명을 배출해 무주농업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장수군, 보훈대상자 대한 예우 정책 강화

장수군은 매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정책을 강화 시행한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예우 확립과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하기 위해 장수군회국보훈수당을 올해부터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상·순직공무원과 5·18 민주유공자를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보훈단체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가정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

동모금회를 통한 별도의 성금을 지급하고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비록 충분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해 아쉬운 점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백운성수농협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기탁

진안군 백운성수농협(조합장 신용민)은 취약계층의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 1,000장(150만원 상당)을 백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희곤, 이하 협의체)에 기부했다.

마스크는 KF-94 마스크 백운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50가구에 각 20매씩 배부하여 코로나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백운성수농협은 농가주부모임을 조직하고 해마다 고추장 나눔행사를 추진하는 등 민민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신용민 조합장과 박희곤 위원장은 2021년을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농협과 협의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달식에 함께한 김현수 백운면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농협과 협의체, 행정이 하나로 뜻을 모아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뜻 깊은 날"이라며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부귀면 맞춤형복지팀 독거노인 세대 방문 봉사

진안군 18일 부귀면(면장 한재길)은 맞춤형복지팀, 부귀면직접사 자원봉사단체와 합동으로 수도 동파 누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방문해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긴 한파로 인해 수도가 동파되고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 거실 등이 침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하여 집안 청소 및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집 안팎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 지원 봉사에 나섰다.

특히 봉사자들은 일시적인 주거환경 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한 생활용품 등을 지급하여 사례관리 대상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을 보일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